

특집: '지구촌 겨울대축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30년 만의 안방올림픽



# 천년을 견디는 뛰어난 보존성, 전 세계가 감탄한 명품 종이 ‘韓紙’

## 전주 한지는 왕실 진상품으로 쓰인 최고 제품



1. 한지를 여러 겹 덧발라 만든 팔각상자.
2.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인 한지(韓紙)는 질기되 부드럽고, 얇지만 단단하다. 장인들이 한 장 한 장 손으로 떠낸 전주 한지에 전통 제본기술과 첨단 인쇄기술이 접목된 '세종실록지리지' 복본(復本).

1

비단은 500년을 가고, 종이는 1천 년을 간다는 말은 한지(韓紙)의 내구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한지 제조과정에서 잿물로 닻나무를 삶아 종이의 성질이 약알칼리성을 띠고, 황축규(닥풀)를 사용해 종이의 강도를 높여 천 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은 한지의 뛰어난 보존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석가탑을 창건할 당시인 서기 751년 통일신라 시대에 넣은 것으로, 탑 속 사리함에서 1천300여 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이다. 8세기에 만들어진 인쇄본이 좀먹기는커녕 그 형태가 오류이 보존돼 있었다. 천 년을 가는 한지의 길 긴 생명력에 그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뛰어난 보존성 때문에 한지는 세계적 문화재 보존용 종지로 주목받고 있다. 2004년 미국 문화재보존학회에서 국

립문서보관서 문서보존처리 전문가에게 품질을 인정받았고, 아프리카 튀니지 국립도서관의 고문서 복원에도 한지가 활용됐다.

한지는 닻나무 거두기 → 찌기 → 껍질 벗기기 → 흑피 제거 작업 → 삶기 → 티고르기 → 두드리기 → 종이 뜨기 → 물빼기 → 말리기 → 다듬기(도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특히 여러 장의 종이를 놓고 다듬이나 디달방아 등으로 두들기는 도침(搗碇)은 우리만의 독특한 종이 표면 가공기술로 이 과정을 거치면 표면이 치밀해지고 기름종이처럼 매끈한 종이가 된다.

전주 한지는 고려 중기 이후 조선 후기까지 수백 년간 왕실 진상품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조선 초 전주의 조지소(造紙所)에서 생산된 전주 한지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내는 공물로 쓰일 정도로 명품 중에서도 명품으로 꼽혔다. 전주가 대표적인 한지 생산지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이 좋고 닻나무의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이다.

한지는 건축 양식과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값싼 수입 종이에 밀려나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





- 02 한국의 얼      천년을 건디는 뛰어난 보존성, 전 세계가 감탄한 명품 종이 ‘韓紙’  
전주 한지는 왕실 진상품으로 쓰인 최고 제품
- 04 특집            ‘지구촌 겨울대축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30년 만의 안방올림픽  
남북한 한반도기 앞세우고 공동입장… ‘평화올림픽’ 기대
- 08 화제            개헌 드라이브 건 문 대통령… ‘삶의 질’ 높이기엔 국정 초점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변함없어”… ‘단계적 개헌’ 시사
- 10 기획            중고자동차 무역에서 건설·관광 분야로 진출 확대하는 라오스 한인사회  
한국인 관광객 17만 명… 한인 설립 코라오그룹은 ‘라오스 국민기업’
- 12 글로벌 코리아    美 연방 하원의원 도전 한인 1.5세 영 김  
배수아 ‘도둑자매’ 번역으로 GKL문학번역상 우수상 받은 재닛 흥  
고려인의 아리랑 복원한 카자흐스탄 음악가 한아름 씨
- 14 지구촌 통신원    베트남서 ‘박항서 열풍’… AFC대회 사상 첫 준우승 이끌어  
수천 명 환영인파에 카퍼레이드… 현지문화 존중 ‘부드러운 리더십’ 평가
- 15 한민족 공감      재일동포,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기원 2억 엔 기부  
모국에 중대사 있을 때마다 성금 지원 아끼지 않아
- 16 동포소식        ‘조선적 재일동포’ 방한, 특별한 문제없는 한 허용 외
- 19 동포 캘린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7월 시카고서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 외
- 20 유공동포        조국의 인재 육성에 여성 바친 재일동포 사업가 김희수 전 중앙대 이사장  
차별대우 감수하며 일본 귀화 거부… 한국인 자존심 지켜
- 21 주목! 차세대    “두 문화 체득 강점 살려 한-伊 가교될 것”… 伊 한인 차세대협회 발족  
교포 1.5세, 2세 40여 명 참여… 통번역, 행사지원 활동 돋보여
- 22 OKF 뉴스        재단 오영훈 기획이사, 기춘 사업이사 임명 외
- 24 고향의 맛·멋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의 온기와 향수 담은 서민 식품, 황성 ‘안흥찐빵’  
밀가루와 팥소가 빛어내는 손맛… 달지 않고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아
- 26 재단공지



### 표지 이야기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과 함께 17일간의 전차를 시작했다. 이번 개회로 한국은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연 세계 5번째 나라가 됐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지구촌 겨울대축제’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30년 만의 안방올림픽

## 남북한 한반도기 앞세우고 공동입장... ‘평화올림픽’ 기대

세 번의 도전 끝에 개최에 성공한 지구촌 최대 겨울 스포츠 축제 동계올림픽이 마침내 대한민국 평창에서 막을 올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과 함께 17일간의 잔치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를 선언하자 평창 스타디움 주변에서 화려한 불꽃이 터져 열전의 시작을 알렸다. 앞서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환영 연설에 이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일 우리나라에 도착해 101일간 전국 2천 18km를 달린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 올림픽 성화는 최종 점화자 ‘피겨여왕’ 김연아의 손을 거쳐 평창 하늘에 타올랐다.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평창 대회는 23번째 동계올림픽이다. 평창은 두 차례 유치 실패를 경험하고서 201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1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기는 1988년 서울 하계대회

이후 30년 만이다. 아울러 1948년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70년 만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기쁨도 나누게 됐다. 우리나라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동·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연 세계 5번째 나라가 됐다. 우리보다 앞서 이를 이룬 나라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이었다.

### 역대 최다 92개국 선수 2천920명 참가... 태극전사 145명 종합 4위 목표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르는 평창올림픽에는 총 92개국에서 2천92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참가 국가와 선수 수에서 모두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였던 2014년 러시아 소치 대회(88개국 2천858명)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15개 전 종목에 걸쳐 선수 145명과 임원 75명 등 총 2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꾸렸다. 소치올림픽에서 국가 주도로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선수단은 IOC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168명의 선수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소속으로 참가했다.



1



2





1~2.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3.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기수인 남측 원윤중, 북측 황충금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하고 있다.

평창 대회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100개 이상 금메달이 걸린 최초의 대회다. 선수들은 평창에서 소치 대회보다 4개 늘어난 총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4년간 키워온 기량을 겨룬다.

우리나라는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 등 20개의 메달을 획득해 역대 최고인 종합 4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2시간 20분가량 진행된 개회식에서 전달하려 했던 핵심 메시지는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다. 한국인이 보여준 연결과 소통의 힘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 행동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내고자 했다.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이번 대회는 더욱더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북한은 피겨스케이팅을 포함한 5개 종목에서 선수 22명, 임원 24명 등 총 46명을 파견했다. 남북한은 여자아이스하키에서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구성해 10일 스위스와 첫 경기를 치렀다. 이날 개회식 식전행사에서는 북한 주도로 발전한 국제태권도연맹(ITF) 소속의 북한 태권도 시범단과 한국 중심으로 성장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의 합동공연이 펼쳐졌다.



1.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 게양된 태극기와 오륜기.
2.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막선언이 끝나자 화려한 불꽃이 터지고 있다.
3.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성화 최종 점화자 김연아가 성화 점화를 하는 모습.

한국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북한 수비수 황충금이 함께 든 한반도기를 따라 남북한 선수단이 한데 어우러져 입장했다. 국제 스포츠 무대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역대 10번째이자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이래 11년 만이다. 문 대통령과 바흐 IOC 위원장 등 내빈은 물론 관람객들까지 남북한 선수단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날 전용기편으로 방남해 개회식에 참석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남북한 선수단을 맞이했다.

성화 점화자는 베일에 공공 가려져 있었지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인 세계적 스타 김연아가 개회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흰색 드레스에 스케이트를 신은 김연아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박종아(한국)와 정수현(북한)으로부터 성화를 건네받은 뒤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제작한 성화대에 화려한 불씨를 옮겼다.

## 김정은 “이른 시일 내 방북 요청”… 문 대통령 “여건 만들어 성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를 예방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親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방북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제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다른 고위관계자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





- 4. 문재인 대통령이 2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기에 앞서 김 제1부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5. 2월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조별예선 1차전 남북 단일팀 대 스위스 경기에 출전한 북한 김은향(4번)이 한국 박예은과 함께 수비하고 있다.

자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대화가 필요한데, 남북 관계로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 환경과 분위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이뤄지려면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분위기·여건·환경이 무르익어야 한다. 두 개의 축이 같이 굴러가야 수레바퀴도 같이 가는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제1부부장 등은 경청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고,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제1부부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장**





## 개헌 드라이브 건 문 대통령... ‘삶의 질’ 높이기에 국정 초점

###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변함없어”... ‘단계적 개헌’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0일 기자회견 때보다 정부 개헌안 마련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



3

1.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 '질문하세요'. 문 대통령이 1월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3.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야 하는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사항 중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개헌안을 마련해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되, 많은 이견이 예상되는 중앙권력구조 개편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개헌으로 미루는 '단계적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 목표... 모두발언서 가장 먼저 언급

개헌 드라이브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의 첫머리에서 '삶의 질 높이기'를 언급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농단의 여파로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는데 진력했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삶의 질을 끌어올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정책에 두겠다고 천명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정책기획위원회 출범식 축사를 통해 "모든 활동의 초점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맞춰달라"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새해 무술년(戊戌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가장 먼저 언급한 데 이어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손에 잡히는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장**

###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 발의해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개헌 준비해야"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당장 개헌발의권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 위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 중고자동차 무역에서 건설·관광 분야로 진출 확대하는 라오스 한인사회

한국인 관광객 17만 명... 한인 설립 코라오그룹은 '라오스 국민기업'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행선지로 부상한 나라가 동남아의 라오스다.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하루하루가 바쁘기만 하기에 라오스의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 ‘슬로우 라이프’(slow life)는 더 매력적인지도 모른다. 2011년 12월 양국 간 직항이 생기면서 라오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급속히 증가, 지난해에는 17만 명이 다녀갔다. 내륙 국가인 라오스는 불교문화와 특유의 온화한 국민 정서가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온한 느낌을 안겨주면서 동시에 역동성을 지닌 정중동(靜中動)의 나라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1.1배에 달하는 영토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수력발전, 광물생산, 서비스관광분야 등의 성장을 바탕으로 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를 졸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국가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과 라오스는 1974년 수교했으나 그다음 해 라오스가 공산화되기 직전 한국 대사관이 철수했다. 중단됐던 외교관계는 20년만인 1995년 재개됐다. 1974년 이전에 라오스에 들어간 한인인 몇 명 안 되고 재수교하면서 이주가 본격화됐다. 먼저 선교사들이 이웃 태국으로부터 라오스로 들어갔다. 이어 중고차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한인들이 줄을 이었다. 솥을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는 한인도 늘어났고 지금도 수십 명이 솥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라오스한인회 정우상(55) 회장도 부산서 살다가 2004년 6월 중고차 무역업을 하러 라오스로 갔다. 당시 라오스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은 150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3천여 명 수준이다. 교민 대부분은 수도 비엔티안에 살고 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지 여행사가 40여 개에 달하고 선물가게, 식당도 40여 개로 늘어났다. 관광지인 방비엥에는 한국식당이 하나도 없었으나 지금은 7개가 생겼고, 루앙프라방에도 한식당이 서너 군데 문을 열었다.

한인회는 1996년에 시작되어 정 회장이 12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한인회 대표적 활동은 5월의 교민 노래자랑과 1년에 한 번 열리는 골프대회가 있다. 라오스에는 부영CC, 라오CC 등 한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이 세 군데 있다. 지난해 루앙프라방에서 혼자 여행 갔던 30대 초반의 한인 여성관광객이 실종되는 사건으로 치안 불안 우려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 정 회장은 낮에는 교차로마다 경찰초소가 다 있어 치안은 확실하다면서 루앙프라방에서 외국인이 실종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오스 한인사회의 특징에 대해 그는 “라오스에 한번 오신 분은 거의 안 떠난다”고만 말했다. 중고차무역업은 1t 화물차를 주로 파는 한인 업체가 많았으나 라오스 정부가 규제하면서 지금은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만 들어가고 있고 건설업 분야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라오스 한인사회를 얘기하면서 코라오그룹과 창업주 오세영(55) 회장을 빼놓을 수 없다. 코라오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중심의 제조와 판매를 주축으로 하면서 유통·건설·레저·바이오에너지·은행 등의 분야에 다양한 계열사를 두고 있다. 코라오는 ‘라오스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했고, 오 회장은 현지에서 ‘자동차 왕’으로 불린다. 라오스에서 가장 성공한 한인이다. 2001년~2004년에 한인회장을 지냈고 한인회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코라오그룹은 한국인 직원이 100명 이상이고 현지인 직원은 3천~5천 명 규모이다. 임금 복지가 잘 되어 있어 라오스 내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꼽힌다.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가운데는 이만수 전 야구감독도 있다.

이 씨는 프로야구 감독직에서 퇴임한 후 라오스 청소년들로 구성된 라오J브라더스를 창단해 야구 불모지 라오스에 야구를 전파하고 있다. 그는 지난 4년간 라오스에 야구를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오스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받았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가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실감 난다. 중국은 비엔티안 한복판에 신도시를 지어 20만 명의 중국인을 본토로부터 이주시킨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가장 높은 38층 높이의 금융플라자 건물도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북쪽 지역으로 가면 중국 위안화도 통용된다고 하니 갈수록 중국경제의 흡인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오스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은 한국에 500~700가구가 있고 라오스에도 20~30가구에 달한다. 라오스인 부인과 사는 한인회 정 회장은 “라오스 여성과 결혼하면 세금 혜택이 있어 사업하면 20~30%는 먹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1.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시내 전경.
2.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교민 노래자랑 행사.
3. 한인회 주관으로 공원청소 행사에 참석한 비엔티안 거주 한인들.
- 4~5. '라오스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코라오그룹과 이 그룹을 일군 오세영 회장.
6. 라오스 대통령 표창받은 이만수 전 감독.

“라오스에 이주하려는 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현지 언어습득이 중요하고 여름밖에 없는 더운 나라이다 보니 날씨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라오 오 회장은 한국의 20~30대 청년들이 평생 젊음으로 살 것처럼 시간을 아까운 줄 모르고 허비하고 있다면서 개도국에 터를 잘 잡으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조언했다. **장**

## 26년 만에 재미동포 출신 미 연방 하원의원 탄생하나?

“한미간 다리 되고 싶다”... 전 캘리포니아 주의원 영 김



한인 여성으로서 첫 미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재미동포 1.5세대인 영 김(한국명 김영옥·56) 전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월 8일 한·미 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의 지난달 은퇴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캘리포니아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진

김 전 의원은 이날 RNC(공화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면담 등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그는 “당선되면 전쟁 없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내에서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입장이 어떤든 의회 동의 없이는 (전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 ‘지한파’인 로이스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뒤 20여년간 보좌관으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보좌관 시절 한미의원 연맹 실무 일을 맡기도 했다. 로이스 위원장도 그에 대한 공식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독도 지명 문제가 불거져 한국 의원들이 방미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한미 양쪽의 언어와 바디 랭귀지를 모두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이 있을 경우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 내 입장을 조율해 한국 정부나 한인 사회에 알리는 데 있어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의원 연맹 활동도 활성화해 한미동맹을 위한 플랫폼을 더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되면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26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배출되게 된다.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한 그는 네 자녀를 뒀으며 2014년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다.



## “외국인 좋아할 작품보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작품 번역”

배수아 ‘도둑자매’ 번역으로 GKL문학번역상 우수상 받은 재닛 흥

“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작품을 번역하기보다는 정말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작품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배수아 작가의 작품 번역도 열정적인 팬의 감정에서 시작됐어요.” 지난해 제정된 GKL한국문학번역상에서 배수아의 단편 ‘도둑 자매’를 번역해 우수상을 받은 캐나다 동포 번역가 재닛 흥(37)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번역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는 질문에 “좋

아하고 사랑하는 작품”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렸을 적 3년여 정도를 한국에서 생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외국에서 생활하느라 대학 2학년 때까지는 한국 문학을 제대로 접한 적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그가 한국 문학 번역을 시작한 계기는 대학 2학년이던 2001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아시아학과의 로스 킹 교수 수업이었다. 당시 수업에서 ‘소나기’, ‘감자’ 같은 단



편 소설들을 배우며 한국 문학을 처음 접했다. 그리고 수업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번역했던 하성란 작가의 ‘옆집 여자’를 킹 교수의 권유로 한국 영자신문이 주관한 한국문학번역상에 응모했던 것이 덜컥 대상을 받으며 번역을 계속하게 됐다. 이렇게 시작한 한국 문학 번역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번역 과정에서 대상 작품의 원작자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스타일의 번역자다. “한국어를 읽었을 때 그 감정은 이해하는데 영어로 정확한 단어를 고르는 게 가장 어렵죠. 처음에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정 모르겠으면 어머니에게 물어요. 어머니도 모르겠다고 하면 작가에게 연락합니다. 한유주 작가의 ‘불가능한 동화’는 말장난이 많은 작품이라 힘들었

지만, (의견을 묻는 이메일에) 작가가 아주 친절하게 답을 보내줬어요.”

그는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수상으로 주목받기 전인 2010년에 이미 ‘채식주의자’를 일부 번역해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영문 문예지 ‘아젤리아’에 소개하기도 했다.



## “이산의 세월 위로한 노래들, 모국서 연주 무대 초청 감격” 고려인의 아리랑 복원한 카자흐스탄 음악가 **한야콥**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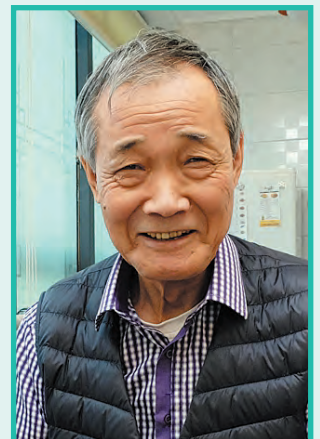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압제를 피해 모국을 등져야 했고 구소련 시절에는 강제이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졌던 고려인을 위로한 건 우리 노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불렀던 아리랑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위로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재즈 1세대 음악가이면서 고려극장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역임한 고려인 한야콥(75) 씨가 1월 12~13일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다큐 콘서트 ‘아리랑 삶의 노래-흩어진 사람들2’ 출연을 위해 방한했다. 창작활동을 통해 국악의 현대화를 선보여온 정가악회가 마련한 콘서트로 한 씨는 자신이 작곡했던 ‘고려아리랑’ 연주를 지휘한다.

그는 “50년 이상 음악가로 살면서 여러 나라에서 공연했지만 가장 감격스러운 게 모국 무대”라며 “강제 이주 후 80년이 넘는 세월을 흘렸어도 민족성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준 고려인의 아리랑을 소개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쁘다”고 밝혔다. 고려인의 노래를 100곡 이상 작곡·편곡하며 민족 노래 보존에 앞장서 온 그는 2007년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1, 2’를 발행하기도 했다. 3년간 러시아를 비롯한 CIS 전역의 고려인 거주지를 찾아다니며 아리랑을 비롯해 구전되어온 노

래들을 채록해 복원한 책이다. “강제이주 첫 정착지인 우수토베를 비롯해 연해주, 사할린, 타슈켄트 등 가는 곳마다 반기며 노래를 불러 주던 1세분 들이 지금은 다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사라나는 차세대 들이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2001년 고려극장을 정년퇴임했으며 현재 카자흐스탄 유소년재즈오케스트라와 알마티 시향의 빅밴드 지휘를 맡고 있다. 재즈 보급을 위해 2006년에는 ‘프로재즈’라는 재즈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도 했다. 재즈를 널리 알리고 민족음악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해 문화체육부 공훈 훈장을 수여했다. **[장]**



# 베트남서 '박항서 열풍' ... AFC대회 사상 첫 준우승 이끌어

## 수천 명 환영인파에 카퍼레이드... 현지문화 존중 '부드러운 리더십' 평가

동남아시아 축구역사를 새로 쓴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1월 28일 베트남 국민의 대대적 환영 속에 귀국했다. 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23세 이하) 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린 중국 창저우에서 특별기편으로 귀국하자 공항은 환영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으며 인근 교통은 한때 마비됐다. 박 감독과 선수들은 곧바로 지방이 개방된 2층짜리 버스를 타고 하노이 시내까지 퍼레이드했다. 카퍼레이드가 벌어진 30km의 도로변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나와 베트남 국기 '금성홍기'를 흔들며 대표팀을 환영했다. 베트남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했지만, 시민들은 베트남이 동남아 축구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데 대해 환호했다.

최근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결승전을 앞둔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의 한 도로변에는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전 국가주석 사진 밑에 박항서 감독의 사진이 걸렸다.

수도 하노이 시내 곳곳에서는 박 감독과 선수들의 사진과 함께 태극기와 '금성홍기'가 그려진 스티커를 부착한 택시들

이 운행하며 베트남팀을 응원했다. 베트남 전역은 박 감독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붉은 물결'로 뒤덮였다.

윤상호 하노이한인회장은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룰 때 거스 히딩크 감독의 모국인 네덜란드 국기를 함께 흔들며 응원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박 감독 사진이 호찌민 주석 사진과 함께 걸린 것은 베트남이 박 감독과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베트남 시민을 만나 박 감독에 관해 물어보면 "감언(고마워요)! 박항서"를 먼저 말할 정도로 '박항서 신드롬'이 불고 있다.

박 감독은 베트남 축구사령탑으로 부임한 지 4개월도 안 돼 이룬 기적 같은 성과의 공을 베트남 국민과 축구계, 선수들에게 돌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의 임기는 2020년 1월까지로 아직 2년이 남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박 감독은 "그 당시 높아진 우리 국민의 기대를 경험해봤다"며 "베트남 국민이 이번에 큰 성원을 보내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부담과 책임감이 엄습한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국민에게 각인된 박 감독의 이미지는 베트남을 존중하는 겸손하고 인간적인 지도자다. 현지 언론들은 경기 시작 전 베트남 국가가 울릴 때 가슴에 손을 얹는 박 감독을 주목하며 다른 외국인 감독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생일을 맞은 선수들의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경기를 마친 뒤 선수들을 일일이 안아주며 격려하는 박 감독의 부드러운 리더십은 팀의 단합과 투혼을 끌어냈다. 박 감독과 선수들은 응우옌 쉰언 폭 베트남 총리로부터 노동훈장을 받았다. **장**

김문성 연합뉴스 하노이 특파원



1.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오른쪽 두번째)이 1월 28일 오후 베트남 정부청사에서 응우옌 쉰언 폭 총리의 환영을 받으며 약속하고 있다. 박 감독은 이날 베트남 축구역사를 새로 쓴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2.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1월 28일 베트남 국민의 대대적 환영 속에 귀국한 후 지방이 개방된 2층짜리 버스를 타고 하노이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한민족 공감

# 재일동포,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 성공 기원 2억 엔 기부

## 모국에 중대사 있을 때마다 성금 지원 아끼지 않아



재일동포사회는 88올림픽 때도 후원회를 통해 541억 원의 성금을 모아 한국 정부에 기부했다. 이 성금으로 올림픽공원 내 수영·테니스 경기장, 대한체육회 본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올림픽회관(사진), 미사리 조정 경기장 등이 건설됐다.



재일동포사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회를 기원하며 1월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부인 장희숙 씨, 이희범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 오 단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최상영 재일본대한체육회 회장.

재일동포사회가 모국에서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도우려고 2억 엔(약 19억6천만 원)의 성금을 내었다.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단장은 1월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사무실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축제의 장(場)인 평창올림픽을 응원하려고 재일동포들이 십시일반 모금했다”고 밝혔다. 오 단장은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패럴림픽 홍보와 선수 격려 등에 성금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이희범 위원장은 “재일동포들이 보내준 정성은 대회 성공에 최대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88서울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는 한우성 재일동포재단 이사장과 최상영 재일본대한체육회 회장도 참석했다. 평창올림픽을 후원하기 위해 동포사회에서 성금을 보내온 것은 이날까지 재일동포가 처음이다. 유재근 민단 상임고문이 1억 엔, 오 단장이 1천만 엔을 내놓은 것 외에 48개 민단 지방본부와 산하의 부인회, 상공회, 체육회 등을 통해 이번 성금을 모았다.

오 단장은 전달식 직후 “차별을 견디며 일본사회에 자리 잡은 재일동포에게 모국은 늘 친정 같은 존재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하려는 마음”이라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기대 이상의 성금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최상영 회장은 “대회 현장 응원도 준비 중”이라며 “개회식에 200명이 참석하고 800명으로 구성된 차세대 응원단이 대회 기간 각종 경기에서 한국을 응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재일동포 사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에 열린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이 제대로 된 유니폼이 없다는 소식에 태극기가 달린 유니폼과 훈련복, 여비 등을 제공했다. 6·25 전쟁 때는 조국 수호를 위해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다. 도쿄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일본 주재 한국 공관 10곳 가운데 9곳의 부지와 건물도 기증했는데 이는 현재 시세로 2조 원을 넘는다. 1960~1970년대는 근대화를 위해 기술과 자본을 전수해 한국 최초 공단인 ‘구로공단’ 등을 설립했다. 이 밖에도 88서울올림픽에 100억엔(당시 541억 원) 성금 전달, IMF 외환위기 때 15억 달러 송금과 국채 300억 엔 매입, 송례문 복원과 천안함, 세월호 유가족 성금 전달 등 모국에서 힘들거나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 ‘조선적 재일동포’ 방한, 특별한 문제없는 한 허용

정부는 이른바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의 방한에 필요한 여행증명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일 이내에 발급해주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 중 불명확한 것으로 지적되는 내용을 삭제해 국가안보 위해 소지, 서류 미비 등으로 거부 사유를 압축하고, 여권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한 개정 민원처리 지침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여권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우리나라 방문이 가능하다”며 “외교부는 인도주의적



외교부는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규정을 정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8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했다.

조선총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중 조선적이 많은 현실 속에 과거 보수 정부는 모호한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 조선적 재일동포들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차원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의 원활한 고국 방문 등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일본에 잔류한 동포 중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여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으려면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에서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친북 단체인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 “티켓 꼭 확인하세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선도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날개’인 제2여객터미널을 1월 18일 공식 개장했다. 총 4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제2터미널은 체크인과 보안검색·세관검사·검역·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터미널과 별도로 이뤄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1터미널은 아시아나 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기타 외국 국적 항공사 등이, 제2터미널은 대한항공·델타항공·에어프랑스항공·KLM 네덜란드항공이 운항한다.

제2터미널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인 게 특징이다. 터미널 중앙 ‘셀프서비스 존’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및 셀프 백드롭 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된 1월 18일 오전 이곳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계를 이용하면 직접 티켓을 뽑고 짐도 부칠 수 있다. 특히 카운터 수하물 처리 속도는 제1터미널의 1.5배 수준인 시간당 900개로 크게 개선했고, 번거로운 보안 수속도 편리해진다. 제2터미널이 본격 운영되는 올해부터 인천공항은 제1터미널을 합쳐 연간 7천 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지만 새롭게 문을 여는 만큼 주의도 필요하다. 인

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예매 후에 받는 전자항공권 이티켓(E-Ticket)에 어떤 터미널을 찾아야 하는지 적혀 있는 만큼 가야 할 터미널을 확인하고 철도, 버스를 이용할 때 하차 역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中 ‘연변TV’ 개국 40년… “200만 조선족 목소리 대변”

중국 연변TV 방송국이 지난해 12월 31일 개국 40년을 맞았다. 연변TV는 개국 일인 이날 오후 40주년을 기념하고 2018년 새해를 맞는 특집물 ‘우리 노래 대잔치’(연출 고춘산)를 위성방송 했다. 앞서 12월 22일 연지(延吉)에서는 ‘개국 40돌 기념 대회’가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 상무위원인 김기덕 선전부 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부장은 “연변TV는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어방송프로그램으로 성장했고, 200만 조선족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연변을 건설하는데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977년 ‘연길TV방송국’으로 출범한 이 방송국은 31개 소수민족으로 처음 조선족이 세운 매체다. 1980년 뉴스프로그램을



2006년 위성방송 개시 축하식 장면.

진행했고, 이듬해 ‘연변TV방송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 TV는 ‘연변뉴스’, ‘심층취재’, ‘우리 사는 세상’, ‘사랑으로 가는 길’, ‘아리랑 극장’, ‘우리말 영웅’ 등을 비롯한 보도, 사회교양, 청소년, 연예오락 등 20여 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동시에 음력설 문예야회, 드라마, 퀴즈, 스포츠 등 비정기적 프로그램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창립 40주년과 자치주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방송한 5부작 다큐멘터리 ‘맛으로 만나는

연변’은 중앙텔레비전에서 송출돼 중국 전역에 연변을 알렸다. 2006년부터 위성방송을 개시해 현재 동북삼성은 물론 내몽골자치구, 광둥성, 한국에 이르기까지 3천300만 명이 시청하고 있다.

## 美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 평창 지지 결의안 만장일치 의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은 2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에 따르면 발의자는 최석호 의원과 샤론 쿼크-실바 의원이며, 주 LA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김지민 부총영사, 로라 전 LA 한인회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결의안은 “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 평화와 화합을 증진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도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돕고 동아시아의 협력과 번영을 위한 구심점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월 5일 최석호 하원의원, 실바 하원 의원 발의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LA 총영사관은 “미국 최대 주이자 한인 동포 밀집 지역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 결의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 하원도 2월 6일 주 의사당서 열린 본회의에서 평창 올림픽 지지 결의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시카고 한인 유

권자 운동단체 ‘KA보이스’(Korean-American Voice)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카고 지역협의회 등의 건의로, 일리노이 주의회 사상 첫 아시아계 의원인 테레사 맥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 전 세계 한식당 크게 증가, 현지인 고객이 절반 이상

전 세계 한식당은 90개국 3만3천499개로 2009년 86개국 9천253개에서 8년 만에 26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이사장 김대근)이 1월 17일 펴낸 '2017 글로벌 한식당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118개 나라의 2천458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세계 한식당은 2009년에 비해 중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국내 한식당은 2천24개에서 1만5천985개로 690% 증가했고, 미국은 1천46개에서 2천247개로 215%가 늘어났다. 일본내 한식당도 4천916개에서 9천238개로 88% 증가했다. 중국·미국·일본 3개국에서 2만530개가 증가해 전체증가분의 85%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2014년 해외 주요 도시의 한식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선호하는 한식 메뉴는 중국은 삼겹살·고기구이, 일본은 갈비·삼겹살·전, 미국은 불고기·바비큐로 나타났다. 사진은 미국 뉴욕에 있는 바비큐 전문 한식당.

이밖에 대만은 22개에서 836개로 3천800% 급증했고 인도네시아도 9개에서 289개로 3천111% 증가했다. 드라마 '대장금'이 오랜 기간 인기를 끌었던 중동지역은 18개에서 57개로 늘었고, 발효음식이 많은 한식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은 321개에서 864개로 증가했다. 한식당의 비약적 성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K드라마·K팝·K스타일 등 한류의 확산이 한식 소비로 이어진 덕분으로 파악됐다. 한식당의 현지화도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 86%가 한인타운이나 한인 밀집지역이 아닌 현지 상권에 자리 잡았고, 현지인 고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식당이 76%에 달했다. 한인 아닌 타민족 경영주 비율도 55%로 조사됐다.

## 중국한국상회 '한국기업백서' 발간... 현황·정책건의 수록

중국한국상회(회장 김흥기)가 1월 12일 '재중국 한국기업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첫째 1억3천700만 달러(1천457억 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575억 달러(61조1천50억 원)로 417배 늘어났다. 김흥기 회장은 "중국 내 44개 지역 한국상회에 등록된 기업은 6천여 개이고 여기에 미등록 기업과 개인투자 등을 포함할 때 전체 투자기업 수는 3만여 개에 이른다"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자 3대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지역도 베이징, 상하이, 텐진, 쑤저우 등 고루 분포돼 있고 최근에는 시안, 충칭, 란저우 등 서부 지역으로의 진출이 증가하



중국한국상회가 발간한 '재중국 한국기업백서'에서 한국 기업들은 과도한 사회보험금 납부 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백서는 교역·투자 등 한중 경제협력 현황과 세제, 노무, 통관 등 7개 공통 현안에 대한 건의, 17개 업종별·6개 지역별 현황과 경영 애로 개선 요청 등도 수록했다. 업종별 애로사항으로는 ▲공장 이전에 따른 지원제도 마련(자동차) ▲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건설·부동산) ▲수입 식품 라벨 조건 통일(식품) 등 68건을 제시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과도한 사회보험금 납부 규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한국상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베이징사무소는 2011년부터 격년제로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백서는 1월 중 중국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 지방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7월

시카고서 '한국어 교육' 학술대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오는 7월 19~21일 미국 시카고의 르네상스 삼버그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정과 전문성을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36회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민 NAKS 회장(사진)은 "올해 대회는 고국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주류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내의 많은 교사가 참여해 열정과 전문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한국어 교육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동포책보내기協, 호주·중국 등에 2만7천 권 전달

해외동포책 보내기운동협의회(이사장 손석우 사진·오른쪽 네 번째)



는 1월 17일 경기도 용인시 책 창고에서 호주 호한문화예술재단(1만 권)을 비롯해 중국 라오닝(遼寧) 성 발해대학(1만 권), 캐나다 에드먼턴한인회(3천 권), 흥천에 있는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2천 권), 동대문구 청소년 도서관(2천 권) 등 모두 2만7천 권의 책을 보내는 발송식을 열었다.

재외한인학회 세미나

"재미동포 2~3세 정체성 확보 방안은?"

재외한인학회(회장 김재기)는 1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미동포 2~3세대 한인의 정체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민병갑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한인 2세의 50% 이상이 타민족과 결혼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주류사회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대부분 3세대인 혼혈인들이 성장한 20년 후에는 이들의 정체성 유지 여부에 따라 한인커뮤니티의 존속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한인교회 4천 곳 넘어... 한인 323명당 1곳꼴

미주 교계 전문지 '크리스찬투데이'에 따르면 1월 13일 기준 미국 내 한인교회 수는 4천454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보다 33곳 늘어나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10년 전인 2008년(3천933곳)보다는 13% 증가했다. 연방센서스국의 한인 인구수에 대비하면 한인 323명당 한 곳꼴로 교회가 있는 셈이다. 미국 내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로 1천375곳에 달하고 이어 뉴욕(461곳), 뉴저지(263곳), 텍사스(236곳) 순이었다.



한상단체, 탈북 청년에게 해외 어학연수·인턴십 제공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상들이 국내에 설립한 비영리법인 글로벌한상드림(이사장 홍명기)이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탈북 청년을 대상으로 '한상기업 인턴십'을 펼친다. 1월 말까지 대상자 4명을 선정해 전체 일정 수료자에게는 6개월간 '한상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과 연수 비용은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사진) 참가자들이 국내 소외계층을 도우려고 마련한 기부금과 글로벌한상드림 기금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두 번째 '한인 파출소' 개소

필리핀 루손 섬의 팜팡가주 앙헬레스 시에 2만5천여 명의 한인과 한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투어리스트 폴리스'(한인 파출소)가 1월 24일 문을 열었다. 파출소는 중부루손한인회(회장 김기영)가 현지 경찰 당국의 협조를 끌어내면서 문을 열게 됐다. 이곳에는 앙헬레스 경찰서 소속 경관 17명이 일하게 되며 5명은 24시간 동안 상주할 예정이다. 한인회는 2008년 앙헬레스 시에 처음 한인 파출소를 열었고, 이번이 두 번째다.



# 조국의 인재 육성에 여생 바친 재일동포 사업가 김희수 전 중앙대 이사장

“다음 세대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인생의 하(下)이며, 사업을 물려주는 것은 중(中)이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상(上)으로 최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한 동교(東僑) 김희수(1924~2012) 선생은 생전에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다.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건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한때 일본을 대표하는 재일교포 사업가였던 그는 세인들에게 ‘부동산 재벌’로 알려졌다. 틀린 말도 아닌 것이 도쿄의 노른자위 땅 긴자에 23개의 빌딩을 소유했을 정도로 부자였다. 그러나 그는 개인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조국의 교육 분야에 뛰어들어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걸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

1987년 중앙대가 부채로 경영난에 봉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재 1천억 원을 출연해 중앙대를 인수, 21년간 이사장으로 재임했다. 예기치 못한 IMF 사태와 일본 내 버블경제 붕괴로 자신의 사업체들이 일순간 무너지는 불운을 맞아 2008년 두산그룹에 학교법인 경영권을 이관했으나 그 후에도 2009년 수림문화재단을 설립해 이사장직을 맡으며 장학사업과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벌였다.

그는 경상남도 창원군 진동면에서 7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다. 조부는 한 학자로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일제의 침탈로 논과 밭을 다 빼앗기면서 가세가 기울었다. 바깥 세상에서 길을 찾아야겠다고 판단한 조부는 아들 형제를 일본에 보냈고 이어 김 전 이사장도 열세 살 때 홀로 현해탄을 건넜다. 도쿄전기학교 졸업 후 잠시 조국 평양의 변전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일본군의 강제징집령이었다. 천우신조로 입영 직전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고 해방소식이 전해졌다. 해방됐지만 가족의 결정에 따라 일본에 정착하기로 한 김 이사장은 양품점 사업으로 큰돈을 번 데 이어 아



중앙대학교 이사장 시절의 김희수 이사장.

“  
차별대우 감수하며  
일본 귀화 거부...  
한국인 자존심 지켜  
”

직 일본인들도 관심을 두지 않던 부동산사업에 뛰어들어 성공신화를 썼다. 부동산사업을 하면서도 땅이나 건물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배격했다.

그는 엄청난 갑부이면서도 이동할 때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사무실은 낡은 책상과 의자 응접세트가 전부일 정도로 검소했다. 또한,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차별대우를 감수해야 함에도 끝내 귀화를 거부한 데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어떠했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그의 좌우명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 였다고 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고인의 철학을 보여주는 글귀처럼 보인다. 그가 별세하자 도쿄에서 가족들끼리만 조출한 장례식을 치렀고 유해는 도쿄 외곽의 도립 공동묘지에 모셔졌다. 1988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1994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



# “두 문화 체득 강점 살려 한-伊 가교될 것” 伊 한인 차세대협회 발족

“저희는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서로 다른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서로 모여 힘이 되며 이런 잠재력을 극대화해 양국을 긴밀히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민 역사가 비교적 짧은 이탈리아에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 연령의 동포들로 구성된 ‘한인 차세대협회’가 결성돼 양국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 한인 차세대협회(KING · Korean Italian New Generation)는 지난해 11월 24일 로마 한국문화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첫걸음을 땀다.

이 단체는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이중 문화 정체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서로 버팀목이 되며 재능과 잠재력을 키워 양국 사이의 가교 구실을 하겠다는 취지로 결성됐다. 단체 창설을 주도한 로마 루이스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홍한울(27) 회장을 비롯해 로마 지역에 거주하는 40여 명의 교포 1.5세, 2세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홍한울 회장은 이탈리아 한인회보를 통해 “한국인이면서 이탈리아인, 이탈리아인이면서 한국인인 저희 교포 1.5세, 2세들은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태생적으로 두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서로 도우며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해 개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한인 사회의 성장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를 만들어 서로 부대끼다 보면 젊은 세대가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활동 방향



지난해 11월 24일 이탈리아 로마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이탈리아 한인 차세대협회’ 발대식에서 홍한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으로 차세대 회원 간 네트워크 형성, 동포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회원들에게 향후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쌓을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회원 류재현 씨는 “한인 차세대협회를 통해 우리 같은 2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통역 활동을 펼칠 기회를 많이 얻었고 다른 2세들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우리만의 공통점들을 공유하며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행해온 많은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9월 바티칸에서 개최되었던 한국 천주교 230주년 기념행사이다. 처음으로 개인이 아닌 10명쯤 되는 다른 2세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정종규 재이탈리아 한인회 부회장은 “2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대부분 한국을 모를 때였는데, 이제 한국에 대해 오히려 관심을 갖고 먼저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며 “한인 사회도 그만큼 커져 후배들이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든든하다”고 말했다. 1973년 이탈리아에서 처음 태어난 한국 남성이라는 기록을 가진 박이태 이탈리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은 “어린 시절 ‘중간이라도 하려면 2배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아버지 말씀을 항상 듣고 자랐는데, 우리는 두 개의 문화를 다 흡수했기 때문에 실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며 “이제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 미래임을 자각하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장]**

“  
교포 1.5세, 2세  
40여 명 참여...  
통번역, 행사지원 활동 돌보여  
”

# OKF NEWS

## 재단 오영훈 기획이사, 기춘 사업이사 임명

재외동포재단은 오영훈(61) 씨와 기춘(58) 씨를 각각 기획이사와 사업이사에 임명했다고 2월 1일 밝혔다.

오 이사는 재외동포재단 출신으로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객원원

구원으로 활동했다. 재단 출신이 임원직에 오른 것은 1997년 재단 발족 이후 처음이다.

기 이사는 2003~200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행정관을 지냈으며 재단 사업이사(2006~2008), 지학순정의평화기금과 한국문화국제교류재단 이사를 역임했다. 임명식은 5일 회의실에서 열렸고 임기는 3년이다.



오영훈 기획이사(왼쪽), 기춘 사업이사

## 청년 150명에 '한상 인턴십' 통한 해외취업 기회 준다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국내 청년 150명에게 '한상(韓商) 인턴십'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1월 30일 밝혔다.

한상기업에 맞춤형으로 국내 우수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5~7기 각각 50명씩 3번에 걸쳐 선발한다.



재단은 올해 한상 기업을 통해 국내 청년 인력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상 인턴십'에 150명을 선발한다.

5기 인턴십은 2월 15일~3월 4일, 6기는 5월 25일~6월 17일, 7기는 9월 16일~23일에 각각 뽑는다. 만 34세 이하로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분야는 무역, 행정, 디자인, 기술직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한정된다.

선발된 청년은 국내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6개월간 인턴으로 파견된다.

연 매출 100만 달러, 종업원 5명 이상이고 현지 적응훈련과 실무교육이 가능해야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최소 500달러의 현금 또는 숙식·교통 등 현물 지원이다. 재단은 6개월간 매달 백만 원씩 지원한다. 인턴십 참여 기업으로 선발되면 인턴 채용 시 면접 담당자의 국내 왕복 항공과 숙박이 제공된다. 정규직 채용을 염두에 둔 기업을 우선 선발하며 단순 노무를 위한 채용은 모집에서 제외된다.

2015년부터 시작한 한상인턴십은 현재 101명이 인턴으로 근무중이고 42명이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올렸다.

재단 관계자는 "경쟁력을 갖춘 청년들이 한상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토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해외 인턴십 경험은 청년들에게 현지 적응력과 국제감각을 키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를 원하는 한상기업과 국내 청년은 재단 한상사업부에 이메일(gotogether@okf.or.kr)이나 전화(+82-3415-0156)로 문의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 재중동포 청소년 모국서 정체성 함양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재중동포(조선족) 청소년 56명을 초청해 1월 22일부터 5박 6일간 서울·전주·공주 등에서 정체성을 함양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22일 서울시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한글박물관, 흥사단, 전주·공주의 한옥마을 등을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파주 DMZ(비무장지대) 탐방 등 안보현장도 견학했다.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 56을 초청해 1월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정체를 함양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이들은 연수를 통해 전통과 현대 문화 등을 접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모국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또 국내의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해 지역별 문화를 보고 배우고 국내 청소년들과의 교류 시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도 형성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를 방문해 한국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정련 유안타증권 팀장 등 중국동포 출신으로 모국 유학에 성공한 선배들과 멘토링 시간도 가졌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뿌리교육을 통해 고취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재외동포재단 제8기 1차 자문위원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2월 1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재외동포재단 제8기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8기 자문위원 2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고, 2018년 재단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문위원은 정관계, 법조계, 군, 언론계, 학계, 재외동포,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장으로는 전 재외동포재단 이

사장인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선임했다. 재단은 연 2회 열리던 자문위원회를 올해부터 4회로 확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재단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단은 2월 12일 ‘제8기 재외동포재단 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사업설명 후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청취했다.

##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들 평창서 한국 응원·자원봉사

재외동포재단은 재단 초청으로 모국을 찾은 동포 장학생 200여 명이 2월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한국 선수단 응원전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루지 남자 싱글 경기를 관람하며 태극기와 현수막을 펼쳐 들고 “대한민국 화이팅”을 목청껏 외쳤다.

또 초청장학생 가운데 9명은 평창올림픽 자원봉사 스태프로 통역, 안내, 의전 등 언어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레스센터에서 스페인어 언어지원 봉사에 나선 에카도르의 김윤아(경희대) 학생은 “익숙한 스페인어·영어·한국어로 모국과 여러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이라 긴장도 되지만 보람도 크다”며 “유학의 기회를 준 모국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200여 명은 2월 11일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한국 선수단을 응원했다.





#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의 온기와 향수 담은 서민 식품, 황성 ‘안흥찐빵’

밀가루와 팥소가 빚어내는 손맛... 달지 않고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아



찐빵 하나로 전국적 명성을 얻은 강원도 황성군 안흥면. 심산유곡의 이 조그마한 면 소재지에 가면 거리 곳곳에서 '찐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빵집 간판은 물론이려니와 정자, 공원, 마을 등 곳곳이 '찐빵'이라는 이름을 내세운다. 찐빵없는 안흥을 상상할 수 없다 싶을 만큼 찐빵은 이 고장의 대표적 홍보대사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찐빵은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의 온기와 향수를 담고 있는 서민의 식품이다.

인구 3천여 명의 면 소재지에 20여 곳의 빵집이 성업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 궁금하다. 이를 알려면 역사·지리적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흥은 서울과 강릉을 잇는 국도 42호선이 지나는 고장으로, 그 한가운데쯤에 위치한다. 예부터 대관령을 넘어 한양과 서울로 가는 영동의 길손들이 이곳에 들러 점심을 먹거나 간식을 챙겼다. 안흥은 그 중간 기착지였던 셈이다. 쌀이 부족해 먹고살기 힘들던 1960년대에 밀가루는 끼니를 때우는 데 요긴한 식량이었다. 이곳 주민들은 막걸리를 숙성시킬 때 쓰는 효모균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 찐빵을 만들어 먹곤 했다. 물론 지나가던 길손들에게도 허기와 출출함을 잊게 하는 별미의 먹거리가 됐다.

1. 안흥찐빵은 밀가루 반죽을 해 빵 성형을 하고 팥소를 넣어 숙성시킨 뒤 찹쌀에 넣어 찌내는 과정 하나하나에 섬세한 손길이 간다.

2~4. 손찐빵은 기계에 의존치 않고 손으로만 빚어낸 정성의 산물이다. 사진은 순수 국산 통팥으로 팥소를 만들어 밀가루 반죽과 함께 빵을 성형하는 모습.

5. 안흥찐빵집의 원조로 꼽히는 '면사무소앞 안흥찐빵'.

6. 안흥손찐빵협회가 지난해 안흥찐빵축제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새 제품 '안흥오륜찐빵'을 선보였다. 백련초, 단호박, 흑미 등을 사용해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색 상으로 만들었다.



5



6

현재 안흥면에는 20여 곳의 빵집이 운영되며 이 가운데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손으로만 찐빵을 만들어내는 전통방식의 손찐빵집은 11곳이다. 1990년대 언론편매에 대해 소개되고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지면서 저렴한 서민음식인 안흥찐빵의 인기가 더욱 치솟아 한때 36곳의 빵집이 성업했다고 한다. 손찐빵집에 들어서면 오뎅한 정감이 먼저 느껴진다. 빵을 빚는 종업원은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 많은데, 살아온 인생담과 세상 얘기를 허물없이 나누다 보면 온갖 시름을 말끔히 잊게 된다고 한다.

안흥찐빵에는 밀가루와 팥을 비롯해 달걀, 소금, 생효모, 마가린, 포도당, 설탕 등이 기본재료로 사용된다. 밀가루는 대개 호주산을 쓰되 팥은 국산을 고수한다. 밀가루, 달걀, 설탕, 소금으로 반죽해 1시간가량 따스한 온돌방에 펼쳐 1차 숙성시킨 다음 검붉은 팥소를 넣어 빵 성형을 하게 되고, 이어 1시간 30분 정도 2차 숙성을 한다. 이 과정에서 빵은 본래보다 2배 안팎 크기로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데 요리사들은 이를 ‘잠자던’ 빵이 일어난다’고 표현했다. 일어난 빵은 20~30분의 표면건조 과정을 거친 뒤 솥에 넣어 약 20분 동안 찜겨 된다. 모두 3시간 30분가량의 수작업 제조과정을 거치면 색과 맛이 일품인 먹음직한 찐빵으로 태어난다.

안흥찐빵의 핵심 중 하나인 팥의 재료와 조리과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빵이 달지 않으면서도 구수하고 담백한 맛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팥소를 그때그때 만들어 쓰되 이 고장에서 나온 팥만 사용해서라고 요리사들은 귀땀한다. 이렇게 만든 팥소에는 방부제를 일절 넣지 않아 본연의 맛을 속 깊게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지극정성의 안흥찐빵은 은근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감칠맛을 품고 있어 애호가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창**

## 새 관광명소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안흥찐빵 마을에서 승용차편으로 40여 분 거리에 있는 소금산 출렁다리가 새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원주시 지정면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등산로 일부 구간 중 100m 높이 암벽 봉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다.

1월 11일 개장 이후 방문객이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주말이면 하루 1만 명이 넘게 찾고 있다. 폭발적인 인기 비결은 국내 산악보도 중 가장 긴 길이 200m와 폭 1.5m의 출렁다리에서 느끼는 짜릿함이다. 높이 100m도 국내 최정상급이다.

마치 절벽 끝에서 구름 위를 걷는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데다 섬강 비경과 원주시 지정면은 물론 경기도 양평군 양동 지역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도 일품이다. 출렁다리는 간현관광지 명성 회복을 위해 원주시가 계획하고 추진한 둘레길, 하강 레포츠 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다. 출렁다리에 연일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간현관광지 일대 상점들도 호황을 누리는 등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통 후 계속된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발길이 끊이지 않아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봄나들이가 시작되면 방문객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횡성 안흥찐빵축제

매년 가을이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는 국내 유일의 찐빵축제가 열려 거리를 흥청거리게 한다. 지난해 11회째를 맞은 안흥찐빵축제는 ‘찐한 추억, 빵 터지는 재미’라는 주제로 10월 13일부터 사흘간 관광객 8만여 명을 불러들이고 손찐빵 1만5천 상자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남홍순 2017안흥찐빵축제위원장은 “면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며 “인기를 얻은 ‘빵양’ 캐릭터에 이어 내년에는 ‘팥군’이라는 캐릭터를 추가로 등장시키는 등 축제 성공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횡성군청은 안흥리 일원에 국비와 지방비 70억 원가량을 투입해 1만8천㎡(약 5천400평) 규모의 안흥찐빵 홍보 공원인 ‘모락모락마을’을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찐빵명품관, 찐빵감성테마공원, 모락모락랜드마크 시설 등으로 이뤄질 이 공원은 안흥찐빵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안흥찐빵축제’ 행사 마스코트 모습.

## 한글학교 교육 알리는 ‘스터디코리안 통신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사이트 ‘스터디코리안’의 해외 통신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지역은 아시아, 대양주, 북미, 유럽, 러시아·중앙아시아, 아프리카·중동 등 8개 지역으로 글쓰기 능력이 우수하고 취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교육 전문가 등을 40명 선발합니다.

선발된 통신원은 스터디코리안 사이트에 한글학교 사업 모델의 홍보 등 교육 관련 글 기사 또는 취재물(사진·동영상)을 월 2회 올려야 합니다.

활동 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개월이며 평가를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2일까지 홈페이지(<http://study.korean.net/>)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력서·자기소개서·자유주제 칼럼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방송사나 신문사의 해외 통신원 등 유사 경력자를 우대하며 작문 능력, 직무 적합성, 현지 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통신원에게는 매번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지리는 높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중점 추진 과제

####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합 [통]

## 합니다

74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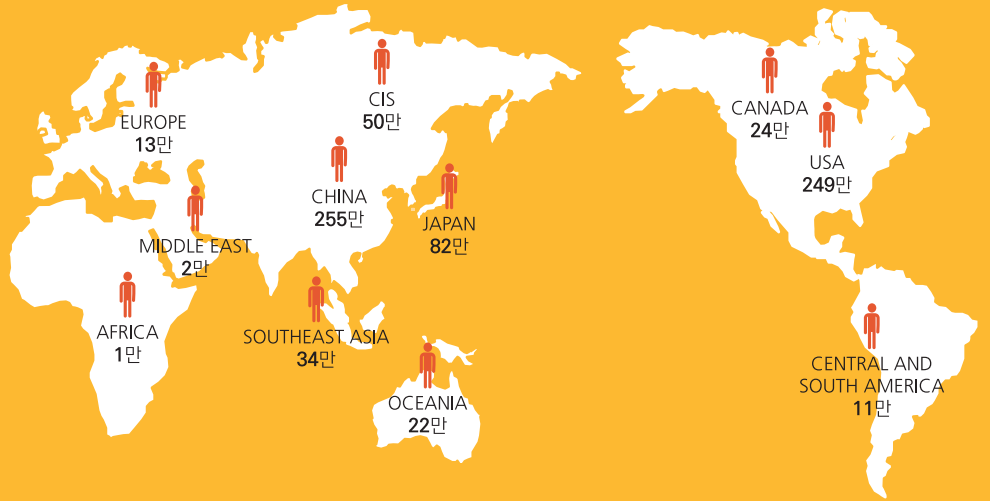
###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